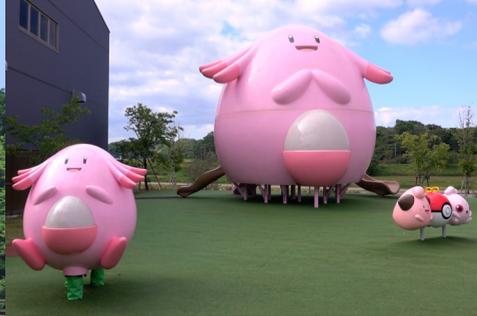




지역 명소 홍보가 목표인 포켓몬 로컬 액트에 따라 9개 현에서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테현에서 꼬마돌(Geodude) 일러스트로 장식된 기차가 해안을 따라 달리고 있는 모습(왼쪽), 미야기현에서 라프라스(Lapras) 모양의 스노 튜브를 타고 즐겁게 노는 아이들(오른쪽 아래). 후쿠시마현에는 사랑스러운 럭키를 테마로 한 공원 4곳을 개장했습니다(오른쪽 위). 오른쪽 위 사진: AFLO



도호쿠의 포켓몬: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2011년 일본 북동부 도호쿠 지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로 손꼽히는 포켓몬(Pokémon)은 즉시 지원 사업에 착수하여 재해로 피해를 본 지역 사회 어린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포켓몬 사의 지원은 이후 몇 년 동안 도호쿠 지역의 재해 복구를 돕기 위한 공동 노력으로 발전했고, 여기에 평범한 사람들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지역 재활성화 작업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포켓몬은 일본에서 비디오 게임 형태로 첫선을 보인 후 전 세계 팬들에게 국제적인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주식회사 포켓몬(The Pokémon Company)은 현재 포켓몬의 광범위한 인기를 활용한 독특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자사의 재해 복구 계획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가 심각했던 도호쿠 3개 현인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습니다. 재난의 여파 속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불확실성으로 가

득한 삶에 직면해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포켓몬 사는 이런 현실에 부응하여 포켓몬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할 방법을 고심했습니다. 포켓몬 본사의 스가 다이고로토요히데(SUGA Daigorotoyohide) 이사는 “모든 일은 직원들이 지원하여 봉제 인형과 다양한 장난감을 피난소에 가져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피카츄가 그 보호소와 초등학교를 방문하기에 이르렀죠.” 라고 회상합니다. 동료인 히로세 치히로(HIROSE Chihiro) 전무이사는 “피카츄가 등장하는 순간 아이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졌습니다. 포켓몬의

존재만으로도 응원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 행복한 순간이었죠.” 라고 전합니다. 2011년 12월에는 도호쿠 지역의 어린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포켓몬 공식 판매점인 ‘포켓몬 센터 도호쿠’를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오픈했습니다. 개장 첫날이 되자 미야기현 게센누마시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피카츄의 등장으로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들.



좌측: 주식회사 포켓몬의 히로세 치히로 전무이사(왼쪽)와 스가 다이고로토요히데 이사. 그들은 지역 커뮤니티와 포켓몬 모두의 매력을 알리는 데 기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측: 포켓몬 로컬 액트에 따라 독특한 포켓몬 디자인으로 꾸며진 맨홀 뚜껑인 "포케 뚜껑"이 일본 전역 30개 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양한 포케 뚜껑을 찾아 전국을 여행하면 재미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부모와 아이들로 성황을 이뤘고, 매장의 판매 수익금은 포켓몬 사의 도호쿠 지역 지원 프로그램인 “포켓몬 위드 유 (Pokémon with You)”의 지원 자금이 되어 이벤트와 활동을 지속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위치 기반 스마트폰 앱 게임인 ‘포켓몬 GO’를 활용하여 도호쿠 지역으로 방문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가 이사는 “우리는 포켓몬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사는 “재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당사의 지원은 지역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부흥 지원의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포켓몬 로컬 액트 (Pokémon Local Acts)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일본 내 다양한 지역에 지역 친선 대사 포켓몬 (Ambassadorial Pokémon)을 선정하고 각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개

현에 지역 친선 대사 포켓몬을 선정했으며 이 중에 도호쿠 지역에서는 이와테현을 대표하는 꼬마돌 (Geodude), 미야기현을 대표하는 라프라스 (Lapras), 후쿠시마현을 대표하는 럭키 (Chansey)가 있습니다. 포켓몬은 각각 현 이름이나 지역 특성과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포켓몬 사는 친선 대사 포켓몬에 로열티를 청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파트너십을 포켓몬 관련 이벤트와 함께 현지 전통 공예품 및 특산품과의 협력을 통한 제품 개발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미야기현에서는 라프라스 모양의 배를 타고 즐길 수 있고, 이와테현에서는 꼬마돌 (Geodude) 일러스트로 장식된 열차를 해안선을 따라 운행합니다. 포켓몬 로컬 액트에서 최근에 세운 계획 중 하나는 공원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2021년에는

럭키 (Chansey)를 메인 디자인으로 활용한 놀이기구를 후쿠시마현에 기증하여 일본 최초로 포켓몬이 등장하는 공원이 탄생했습니다. 히로세 전무이사는 “언제나 포켓몬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럭키가 있는 공원에서 놀면서 자라는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럭키가 항상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리라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 집니다”라며 긍정적인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이런 장소가 지역 풍경과 어우러지면 여행객도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히로세 이사는 “우리의 사명은 포켓몬의 힘을 통해 세계를 연결하는 데 있으니 해외 관광객들과도 교류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11년 3월 지진이 발생한 이후 약 13년이 흘렀지만, 앞으로도 포켓몬은 도호쿠 지역 주민 곁에 머물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얼굴에 미소를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

